

『구운몽』에 나타난 對稱的 世界觀

신 태 수*

<목 차>

- I. 問題의 提起
- II. 對稱的 世界觀의 表出 樣相
- III. 儒佛思想의 交涉과 對稱的 世界觀의 向方
- IV. 對稱的 世界觀을 통해 본 『구운몽』의 小說史的 位相
- V. 結論

【요 약】

『구운몽』에는 여러 공간과 인물이 각기 깊은 관련을 지니며 대등한 위치에서 중립으로 교섭한다. 공간이나 인물이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는 대칭적 세계관이라는 원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물론 대칭적 세계관이 작품의 지배적 원리로 자리매김하지는 못한다. 유불사상이 대칭적 세계관을 견제하면서 작품의 지배적 원리로 등장하는 까닭이다. 유불사상은 각기 독자적으로 나서서 견제를 하지 않는다. 유교사상은 불교사상 속으로 들어가고 불교사상은 유교사상 속으로 들어가면서 ‘유불의 넘나들기’ 형태로 대칭적 세계관을 견제하고자 한다. ‘유불의 넘나들기’는 일종의 창작방법이기 때문에 실제로 대칭적 세계관을 위축시키지는 못하지만, 서사문학에서 대칭적 세계관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데 기여한 점은 인정된다. 이로 보아, 『구운몽』은 전

* 경일대학교 교육문화콘텐츠학과 교수

대 소설의 물줄기를 바꾸고 새로운 경향을 창도하고자 하는 소설이라고 할 수 있다.

I. 問題 提起

『구운몽』에는 공간이 아주 넓게 나타난다. 지상계뿐만 아니라 선계와 수중계 그리고 冥界까지 확장되어 있다. 인간의 생각이 미치는 공간은 모두 망라되었다는 점에서 범우주적으로 공간을 활용한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공간이 이렇게 넓어지니 등장인물 또한 인간만이 아니다. 선계에서는 신선이 등장하고 수중계에서는 용왕이라든가 용녀가 등장하고 명계에서는 황건역사가 등장한다. 『구운몽』에서는 공간이 확장되고 인물이 많이 등장하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공간은 공간끼리 인물은 인물끼리 종횡으로 교섭하는 양상을 보인다. 공간과 공간, 인물과 인물이 광범위하게 교섭한다면, 이런 교섭을 가능하게 하는 動因이 있게 마련이다. 『구운몽』이 공간이나 인물의 교섭을 가능하게 하는 동인을 내장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그런 동인을 힘써 찾아내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물리적 측면에서 볼 때, 공간과 공간 사이에는 분명히 높낮이가 있다. 공간의 경우 천상계는 높고 지상계는 낮고 수중계는 상대적으로 가장 낮다. 한편 위상의 측면에서 볼 때, 인물과 인물 사이에도 높낮이가 분명히 있다. 인물의 경우 신선이나 용왕은 위상이 높고 인간은 그 위상이 상대적으로 낮다. 물리적인 측면이나 위상의 측면으로 보아서 공간이나 인물이 상호 교섭하는 현상을 읽어낼 수 없다. 공간이나 인물이 종횡으로 교섭한다면 물리적인 측면이나 위상의 측면과는 다른 측면이 작용한다고 보아야 합당하다. 여기서 대칭적 세계관을 떠올려 볼 수 있다. 대칭적 세계관은 모든 생명이나 사물이 각자의 위치를 지니면서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교감한다고 믿는 사고 체계이

다.1) 이런 사고체계에 입각할 경우, 주체와 객체가 대등해지고 등급과 서열이 없어진다. 『구운몽』에서 공간이나 인물이 자유롭게 교섭하므로, 만상을 대등하게 보는 사고 체계 즉 대칭적 세계관이 어떤 식으로든 반영되었으리라 여겨진다.

대칭적 세계관은 신화시대의 소산이다. 신화시대에는 인간과 자연, 인간과 사물, 사물과 사물이 내재적으로 긴밀한 연관을 맺는다. 인간, 자연, 사물이라는 구분은 있지만, 이들 사이에 등급은 없다. 인간이라 해서 더 높고 사물이나 자연이라 해서 더 낮다고 할 수가 없다. 이런 기초 위에 속계와 이계, 인간과 이물의 교섭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속계와 이계의 교섭, 인간과 이물 사이의 교섭이 모두 나타나기도 하고 어느 한 쪽만이 선택적으로 나타나기도 하나, 두 쪽 모두가 전연 나타나지 않는 경우는 없다. 한 쪽보다는 두 쪽 모두가 나타날 때 대칭적 세계관이 더욱 강하리라는 점은 자명하다. 『구운몽』에서는 속계와 이계의 교섭, 인간과 이물의 교섭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이물과 이물의 교섭까지 나타난다. 속계와 이계의 교섭, 인간과 이물의 교섭이 대칭적 세계관을 구현하는 기본방식이라고 할 때, 『구운몽』의 경우는 기본방식을 확장시킬 만한 자질을 충분히 갖추었다 할 만하다.

자질이 됴됨이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자질이 훌륭해도 됴됨이는 얼마든지 미흡할 수가 있는 법이다. 『구운몽』의 경우가 바로 그러하다. 대칭적 세계관을 구현할 수 있는 자질은 충분히 갖추었지만, 대칭적 세계관이 작품 전체를 장악할 정도의 됴됨이를 갖추었느냐 하는 데는 회의적이다. 그런 근거는 두 가지 측면에서 확보될 수 있다. 우선 귀신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귀신은 속계와 명계를 넘나들면서 대칭적 세계관을 강화하는 구실을 하곤 하는데,2) 귀신이 등장하지 않는다

1) 대칭적 세계관에 대한 개념, 기능, 의의에 대해서는 신태수, 「殊異傳 逸文의 신화적 성격과 교환 가능성의 실현 양상」, 『어문학』85, 한국어문학회, 2004, 207~211쪽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 있다.

2) 신태수, 「귀신등장소설의 본질과 그 변모과정」, 『어문학』76, 한국어문학회,

면 대칭적 세계관의 위상도 그리 강하지 않으리라 여겨진다. 그 다음으로 대칭적 세계관이 儒佛의 틈바구니에 끼여 있다는 점이다. 유불은 외래의 신앙이고 대칭적 세계관은 재래의 사교체계이므로, 재래의 사교체계가 외래의 신앙이라는 적대세력과 맞서는 셈이 된다, 두 가지 사항을 보니 대칭적 세계관이 확장 혹은 강화될 만한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데, 이런 분위기에서는 대칭적 세계관이 제대로 구현되기가 어려우리라는 예상이 든다.

됨됨이가 자질을 따르지 못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때, 『구운몽』의 작가가 대칭적 세계관을 구현하는 데 목표를 두지 않았으리라 여겨진다. 필요에 따라 대칭적 세계관을 끌어들이기는 했지만, 대칭적 세계관이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필자는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칭적 세계관이 유불사상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그 思想史的 位相은 무엇인지를 천착해 보고자 한다.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유의할 사항이 있다. 한 가지는 傳奇的 手法를 우선 주목해야 한다는 점이다. 전기적 수법은 대칭적 세계관이 등장할 수 있는 일종의 통로이기 때문이다. 다른 한 가지는 대칭적 세계관의 의의나 한계가 『구운몽』에서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칭적 세계관은 초기 서사문학에서부터 비중 있게 다루어지므로, 그 추이를 점검하면서 『구운몽』에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살펴야 한다. 이렇게 할 때, 『구운몽』에 구현된 대칭적 세계관의 위상이 보다 선명히 부각되리라 믿는다. 자료는 서울대 소장 완판본으로 한다.

II. 對稱的 世界觀의 表出 樣相

『구운몽』에서 대칭적 세계관은 전기적 수법을 통해 나타난다. 속계,

2002, 393~398쪽에서는 귀신이 속계와 명계를 넘나들면서 가정문제, 가정문제, 사회문제와 광범위하게 관련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이계 그리고 인간, 이물이 각기 대등한 위상을 지니면서 내재적으로 긴밀한 연관성을 맺는다고 믿는 사고체계가 대칭적 세계관이므로, 전기적 수법은 대칭적 세계관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장치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전기적 수법이 곧 바로 대칭적 세계관을 담보한다고 할 수는 없다. 대칭적 세계관은 전기적 수법을 필요로 하지만, 전기적 수법은 반드시 대칭적 세계관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양자가 이처럼 다른 까닭은 목적의 차이에서 찾을 수 있다. 전기적 수법은 幻想性的의 표출이 목적이라면 대칭적 세계관은 世界的 統合的 認識이 목적이다. 즉 세계를 통합적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전기적 수법을 수단화하게 되지만, 전기적 수법은 굳이 세계의 통합적 인식을 지향하지 않아도 된다.³⁾ 이 점을 의식하면서 전기적 수법을 우선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전기적 수법은 속계와 이계, 이계와 이계, 인간과 이물의 경계 지점에서 포착된다. 이계의 인물이 속계로 속계의 인물이 이계로 출입하고 이물이 인간으로 인간이 이물로 변신할 때, 시간 개념이나 거리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다. 즉 출입이나 변신이 절차 혹은 순서가 없이 손쉽게 이루어진다. 물결을 헤치고 나아가기만 하면 용궁에 곧 바로 당도하고 地府로 들어가면 곧 바로 冥界에 당도한다. 모든 출입이나 변신이 오차 없이 이루어지므로, 서로 다른 공간이나 인물이 하나의 거대한 무대 위에서 순조롭게 움직인다는 인상이 든다. 경험적 논리로 보면 전혀 당연하지 않은 현상들이 아주 당연하게 이루어지도록 설정되었으니, 일단 무대 위의 공연을 즐기러 온 관객이라면 초자연적인 현상을 주저 없이 경험적 현실처럼 받아들이게 되어 있다.⁴⁾ 결국 ‘초자연

3) 만약 전기적 수법이 세계의 통합적 인식을 드러내는 장치로 활용된다면 전기적 수법은 더 이상 환상성의 범주에 머무르지 않고 대칭적 세계관의 범주로 넘어간다고 보아야 한다.

4) 송성욱 교수는 「고전소설에 나타난 환상적 표상의 몇 가지 층위」, 『성심어문논집』25, 성심어문연구회, 2003, 9쪽에서 ‘환상적 표상을 통한 리얼리티의

적 현상의 경험적 현실화'가 『구운몽』에서 나타나는 전기적 수법의 특징이다. 전기적 수법이 무엇을 겨냥하고 있는지를 살핀다면 대칭적 세계관의 윤곽이 드러나리라 본다.

전기적 수법을 살피기 전에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다. 특정 장면에서만 전기적 수법을 찾아야 하는가 아니면 전체 장면을 놓고 전기적 수법을 찾아야 하는가 하는 점이 그것이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원인은 『구운몽』의 독특한 구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구운몽』은 환몽구조를 지닌 작품이다. 환몽구조라면 '현실 → 꿈 → 현실'의 추이를 보이게 마련이고, 으레 꿈에는 환상적 인물이 등장하고 환상적 사건이 펼쳐지게 되어 있다. 『구운몽』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현실을 다룬 부분에 환상적 장면이 적지 않고 꿈을 다룬 부분에 현실적 장면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⁵⁾ 현실을 다룬 부분이건 꿈을 다룬 부분이건 간에 속계와 이계가 뒤섞이고, 인간과 이물이 뒤섞인다. 전기적 수법이 어느 특정 장면에서만 나타나지 않으므로, 전체 장면을 대상으로 전기적 수법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 전기적 수법은 인물의 행동이나 말을 통해 구현되므로, 전기적 수법을 드러내는 행동이나 말을 순차적으로 정리해 보기로 한다.

■ 전기적 수법

- 1) 대식 락일 모든 제주로 더브러 불법을 강논하더니 동정룡왕이 화하여 빅의노인이 되어 범석의 참여하여 경문을 뜻는지라 (상 2~3쪽)
- 2) 성진이 철근 가스를 썰쳐 넓고 녹환장을 둘러잡고 표연이 동정을 향하야 가니라 (상 3쪽)

획득'이라는 각도에서 설명하고 있다.

- 5) 여러 논자들이 현실의 세계와 꿈의 세계가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가운데서 金一烈, 『古典小說新論』, 새문社, 1991, 203쪽과 이주영, 「구운몽에 나타난 욕망의 문제」, 『古小說研究』13, 韓國古小說學會, 2002, 37~41쪽의 논의는 본고 집필에 특히 도움이 된다. 현실의 세계와 꿈의 세계가 지니는 관련 양상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다루어 놓았기 때문이다.

- 3) 이윽하여 문적큰 도인이 대시씨 고희야 왈 남악 위 부인이 팔기 선
너를 보내여 문 맞기 왔느이다 (상 3쪽)
- 4) 성진이 동정의 가 물결을 헤치고 슈정궁의 드러가니 농왕이 대희하
여 치니 문무제신을 거느리고 궁문 맞기 나 마즈 드러거 좌를 정훈
후의 (상 6쪽)
- 5) 크게 소리하야 황건역스를 불너 분부하여 왈 이 죄인을 영거하여 풍
도의 가염왕씨 부치라 (상 15쪽)
- 6) 스형과 스제를 이별하고 스자를 쫓아 수만 리를 행하야 음혼관 망향
덕을 지나 풍도의 드러가니 문지큰 군졸이 왈 이 죄인은 어딤 죄인
이요 황건역스 답왈 녹관대스의 명으로 이 죄인을 자바 오노라 (상
16~17쪽)
- 7) 이 아희 골격이 청슈하니 천상신선이 귀향 왔도다 하고 일흠을 쇼유
라 하고즈는 천리라 하더라 (상 21쪽)
- 8) 일일은 처시 부인드려 왈 나는 세속 스름이 아니요 봉늑산 선관으로
셔 부인으로 더부러 천싱연분이 이셔 느려왔거니 이제 아들을 나하
시니 나는 봉늑산으로 가거니와 부인은 말년의 영화를 보시고 부귀
를 향복호소서 하고 학을 타고 공중으로 올라가니라 (상 21쪽)
- 9) 문득 보니 절벽 우회 수간초당이 이시미 구름이 무리우고 학의 소리
들리거늘 분명 인가 있다 하고 암간석경으로 올라 츠즈가니 혼 도식
안석의 비겨 양싱을 보고 도사 한분이 책상을 의지해서 누워 잇다가
괴기하야 문왈 네 피란하는 사름이니 반드시 회남 양쳐스의 아들이
라 (상 31쪽)
- 10) 도식 소왈 부즈간지정이 중하나 선범이 다르니 보기 어려오니라 쯔
삼산이 막연하고 십두 물하니 네 부친의 거네 부질 업시 슬허 말고
예셔 유하야 평난흔 후의 느려가라 (상 32쪽)
- 11) 도식 소왈 인간공명이 너를 쓰르는 거시니 네 아모리 하여도 피치
못홀지라엇지 날갯튼 노부를 조츠 속결업시 늙으리요 말년의 네 네
도라갈 고시 이시니 우리의 덕는 아니니라 (상 34쪽)
- 12) 도식 소왈 네 혼스난 녀려 곳의 잇거니와 진씨 혼스는 어두은 밤
갯니 싱각지 말나 양싱이 도스를 피시고 자더니 문득 동방이 썩
는지라 도식 싱을 불너 왈 즉금은 평난하고 과거는 명춘으로 퇴정
하여난지라 대부인이 너를 보내고 쥬야 넘녀하시니 수이 가라 하고
횡장을 츠려 주신덕 (상 34쪽)

- 13) 상서씨 고희야 우리 낭지 흐 말슴을 상서씨 슬고져 호오니 원컨대
상서는 잠깐 횡츄호소서 상세 왈 네 낭즌는 엇던 사름이뇨 디왈 우
리 낭즌는 동정 봉왕의 자근 쏘이여니와 잠깐 피우호야 예 와 잇느
이다 (하 22쪽)
- 14) 너동이 왈 물을 진문 밧기 밍여스오니 그 물을 트시면 즈연 가시리
이다 상세 너동을 쏘아가니 이우호야 들어갈시 궁궐이며 위의 찬란
호더라 너동 슈인이 나와 상서를 마즈 빅옥교 위에 안치거늘 상세
스양치 못호야 안죃더니 (하 22쪽)

■ 공간, 인간, 이물의 교섭 양상

A. 속계와 이계

속계와 수중계 ----- 1), 2), 4), 13), 14)

속계와 명계 ----- 5), 6)

속계와 천상계 ----- 7)

속계와 선계 ----- 3), 8), 9), 10), 11), 12)

B. 인간과 이물

인간과 수중계인 ----- 1), 13), 14)

인간과 신선 ----- 8), 9), 10), 11), 12)

C. 이물과 이물

신선과 선녀 ----- 3)

신선과 수중계인 ----- 4)

신선과 명계인 ----- 5), 6)

전기적 수법을 통해 공간, 인간, 이물의 교섭 양상을 정리해 보았다. 공간과 공간끼리는 아주 개방적이다. 각기 地境이 다르고 風物이 다르기는 하지만, 속계에서 이계로 이계에서 속계로 손쉽게 나들고 있다. 동정호의 용왕이 육관대사의 설법 시간에 맞추어 참석한다든지 육관대사가 종남산 누각으로 양소유를 찾아온다든지 양소유가 바위틈을 지나 남전산의 선계에 이르렀다든지 하는 점을 근거로 삼을 수 있다. 용왕이나 육관도사야 워낙 탁월해서 이계에서 속계로 혹은 속계에서 이계로 이동이 자유롭다고 하더라도 양소유는 어디까지나 인간인자라 이동

이 자유로울 수가 없다. 공간과 공간이 개방적이기에 출입이 자유롭다고 해야 맞다. 한편 인간과 이물끼리, 이물과 이물끼리 경계가 없다. 별다른 금기 없이 인간이 수중계인이나 신선과 교섭하고, 신선이 선녀, 수중계인, 명계인과 교섭하는 데서 이 점이 드러난다. 공간과 공간, 인간과 이물, 이물과 이물의 교섭을 전기적 수법이 담보한다고 볼 때, 대칭적 세계관이 전기적 수법을 통해 작품 전체를 지배하리라는 예상을 하게 한다.

이런 예상은 적중하지 않는다. 대칭적 세계관이 작품 전체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장치가 곳곳에 널려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공간의 경계를 넘어 인물과 교섭하거나 인물의 경계를 넘어 공간과 교섭하거나 할 때, 중심인 것과 중심 아닌 것의 구별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대칭적 세계관이 작용하자면 중심인 것과 중심 아닌 것과의 구별이 없어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 중심인 것과 중심 아닌 것이 어떻게 구별되는지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첫째, 속계와 이계가 교섭할 경우에는 반드시 속계가 중심이 된다. 즉 속계는 속계의 각 공간이 서로 교섭할 뿐 아니라 이계의 여러 공간과도 활발하게 교섭하지만, 이계는 이계의 각 공간끼리 교섭하지 못하는 데서 이 점이 확인된다. 둘째, 인간과 이물이 교섭할 경우에는 반드시 인간이 중심이 된다. 인간은 인간끼리 서로 교섭할 뿐 아니라 이물과도 활발하게 교섭한다. 이물도 이물끼리 교섭하기는 하나, 인간이 나서지 않을 때만 이물 간의 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을 따름이다. 결국 공간의 측면에서는 속계가 중심이 되고 인물의 측면에서는 인간이 중심이 되면서, 만상에 높낮이가 있음을 드러낸다.

높낮이는 중심인 것 사이에도 존재한다. 즉 속계와 인간 사이에도 주도권은 존재한다. 공간이 제시되고 여러 인간들이 그 공간에 기거한다고 할 때는 공간이 주도권을 잡은 듯하지만, 주인공이 등장한 뒤로부터는 주도권은 주인공에게로 넘어간다. 주인공이 움직일 때만 공간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주인공이 일직선으로 나아가자 공간도 주인공

의 행로를 따라 일직선으로 배치된다.⁶⁾ 물론 어느 소설에서나 공간이 일직선으로만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 주인공이 주변 환경에 이끌려 다니는 소설에서는 공간이 곡선의 형태로 배치되기도 한다. 『최척전』이라든가 『이태경전』이라든가 하는 소설에서 그런 양상이 나타난다. 이들 소설에서는 주인공이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주변 환경이 요구하는 대로 내몰린다. 첫 공간에서 출발한 뒤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 원래의 자리로 회귀하기까지 좌우 공간이 주인공을 에워싸는 형태를 취하므로, 공간 배치가 곡선이라고 할 수 있다. 『구운몽』의 경우에는 이런 곡선의 공간 배치가 나타나지 않는다. 공간이 주인공을 장악하지 못하고 주인공이 공간을 장악하면서 나타나는 불가피한 현상이다.

물론 인물이 공간을 장악한다고 해서 자기대로의 소신이 있다고 하기는 이르다. 양소유가 여인을 만나는 장면을 보면 어느 정도 해명이 된다. 양소유는 과거를 보려고 집을 나섰을 뿐이지 여인을 만나기 위해 집을 나서지 않았다. 과거 길을 떠나면서 양소유는 뜻밖에도 진채봉, 계섬월, 정경패를 만나 가연을 맺는다. 이들 여인이 천상계에서부터 접지된 배필이라는 점에서, 양소유에게는 뜻밖의 만남이지만 사실은 예정된 만남이라고 해야 맞다. 양소유가 집을 떠나야 천정배필을 만날 수 있다고 볼 때, 엄밀한 의미에서 과거행은 양소유 본인의 의지라고 보기 어렵다. 천정배필을 만나게 하는 원리가 있어서, 그런 원리가 양소유에게 과거행을 택하도록 했다고 보는 편이 타당할 듯하다. 천정배필을 만나게 하는 원리란 불교의 緣起論과 유교의 功名主義이다. 천상계에서의 만남이 지상에서의 만남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연기론이고, 부귀를 누리며 여러 처첩을 거느린다는 점에서 공명주의이다. 이 같은

6) 양소유의 科擧行 과정은 그 좋은 예가 된다. 양소유가 과거에 응시하기 위해서 서울로 올라가야 한다. 과거 응시가 목적이니, 길을 우회하지 않고 똑바로 갈 필요가 있다. 이 점에서 고향인 회남도 수주현을 기점으로 하여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화주 땅의 회음현, 남전산, 수주, 낙양은 일직선이라고 보아도 좋다.

유불사상은 팔선녀 모두를 만날 때까지 지속되므로, 양소유는 결국 유불사상에 조종당하는 하수인이라는 지적이 가능하다.

높은 쪽은 낮은 쪽에 대해서 지배력이 아주 강하다. 유불사상은 주인공을 자유자재로 조종하고, 주인공은 속계나 이계의 공간을 자유자재로 돌아다니는 데서 이 점이 드러난다. 높낮이가 설정된 곳에서는 대칭적 세계관이 위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대등관계를 지향하는 대칭적 세계관에게 높낮이가 설정된 곳은 적합하지가 않기 때문이다. 공간과 공간끼리 인물과 인물끼리는 대등하므로 대칭적 세계관은 공간과 공간 사이, 인물과 인물 사이에만 위력을 발휘하게 된다. 문제는 인물이 여러 공간을 휘젓고 돌아다닌다는 데 있다. 공간이 인물에 의해 장악된다면 공간을 통해 나타나는 대칭적 세계관은 인물의 행로를 보조하는 구실을 넘어서지 못한다. 예컨대 주인공이 용왕을 만나고자 할 때 속계와 수중계가 비로소 교섭하고, 신선을 만나고자 할 때 속계와 선계가 비로소 교섭한다. 속계, 수중계, 선계가 원래 교섭하도록 배설되었다기보다는 주인공이 움직이면서 교섭 관계가 형성된다고 해야 맞다. 주인공이 움직여야만 대칭적 세계관이 작용할 수 있다면, 대칭적 세계관은 주인공의 의식과 행동을 뒷받침하는 수단 이상의 의미를 지니기는 어렵게 된다.

대칭적 세계관이 수단에 불과하다면 이입되지 않아도 그만이라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 비록 수단이기는 하나 반드시 필요한 측면이 있다. 주인공은 영웅이고 해야 할 일이 많다. 여러 곳을 돌아다녀야 하고 여러 인물을 만나야 한다. 즉 선계, 수중계, 천상계, 명계, 지상계라는 공간을 모두 돌아다녀야 하고, 수중계인, 신선, 인간 등의 다양한 인물을 두루 만나야 한다. 이 모든 공간과 인물들을 주인공 혼자서 감당하기는 어려우므로 공간적 거리를 좁힐 필요가 있다. 바로 여기서 대칭적 세계관은 제한적이거나 어느 정도의 구실을 하게 된다. 바꾸어 말해 주인공과 공간이 연결되지 않을 때는 대칭적 세계관이 독자적으로 기능하기가 어렵다. 높낮이를 가리는 수직적인 축이 존재하고 있어

서 대칭적 세계관의 기능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구운몽』은 ‘높낮이를 통해 공간, 인물, 사상을 서열화하기’라는 원리를 설정함으로써 상당한 깊이와 넓이를 지닌 대칭적 세계관을 오로지 서열화의 도구로만 활용한다고 할 수 있다.

Ⅲ. 儒佛思想의 交涉과 對稱的 世界觀의 向方

『구운몽』에서는 불교사상과 유교사상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 불교사상과 유교사상은 현실에 대한 관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한 자리에 놓이기가 어려울 듯한데,⁷⁾ 『구운몽』에서는 그렇지 않다. 성진의 불교적 이념에 유교적 색채가 농후하고, 양소유의 유교적 이념에 불교적 색채가 농후하다. 대척적인 두 사상이 각기 주인공의 모습 속에 녹아들면서 혼용되는 경향을 보이므로, 인물을 통해 두 사상이 교섭한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和同할 수 없는 두 사상이 교섭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터이다. 대칭적 세계관이 『구운몽』에 광범위하게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유교사상과 불교사상의 교섭 현상은 대칭적 세계관과의 관계에서 기인할 가능성이 많다. 대칭적 세계관과 두 사상이 어떤 관련을 맺고 있으며, 두 사상의 교섭으로 인해 대칭적 세계관의 향방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구운몽』에서 두 사상이 교섭할 만한 통로가 별도로 있지는 않다. 두 사상이 각기 서로 다른 세계에서 구현되기 때문이다. 즉 서사의 내용이 ‘현실 세계 → 꿈의 세계 → 현실 세계’의 순으로 펼쳐지는데, 현실 세계에서는 불교사상이 나타나고 꿈의 세계에서는 유교사상이 나타난다. 원래 두 사상이 대척적인데다 구현되는 세계까지 각기 다르므로

7) 주지하다시피 유교사상은 심성 수양을 통해 인격적 완성을 도모하고자 하므로 현실 지향적 측면이 강하다면, 불교사상은 무위와 명상을 통해 해탈 내지는 열반을 도모하고자 하므로 현실 부정적 측면이 강하다.

교섭하기가 어렵도록 되어 있다. 두 사상이 동시에 나타난다면 충돌과 착종이 일어날 터이기 때문에, 어느 한 쪽에 더 큰 비중을 두거나 각기 다른 세계에 분속시키거나 할 수밖에 없을 듯하다. 두 사상의 위상이 구현되는 방향은 후자 쪽이다. 각기 다른 세계에 분속되어 불교사상은 그 나름대로 유교사상은 또한 그 나름대로 현실세계와 꿈의 세계에 편재한 대칭적 세계관과 대응하고 있다. 대응의 방향은 유불 사상이 각기 대칭적 세계관의 의의를 견제하는 쪽으로 나타난다. 견제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이다. 대칭적 세계관의 특정 요소를 빼 버린다는지 대칭적 세계관의 궁극적인 지향점을 가로채 버린다는지 대칭적 세계관이 구현한 세계를 유불의 범위 안에 용해시켜 버린다는지 한다. 이를 순서대로 짚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불사상이 귀신이 등장할 수 있는 여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는 점이다. 귀신은 대칭적 세계관이 구현되는 작품에서는 빈번하게 등장한다. 귀신을 등장시킬 때 인간이 영위하는 삶의 이면뿐만 아니라 자연, 사물, 인간의 관계까지 드러내기가 용이하므로, 대칭적 세계관이 구현되는 작품에서는 귀신을 우호적으로 보게 마련이다. 귀신의 등장은 자연, 사물, 인간의 관계에서만 한정되지 않는다. 인간과 이물이 자유롭게 교섭한다고 할 때, 유불사상과는 다른 방향에서 철학적 영역을 확보할 여지도 생긴다. 예컨대 죽음과 삶을 관련시켜서 存在論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氣의 聚散現象과 관련시켜서 宇宙論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 귀신이 등장하면 삶의 영역을 대칭적 세계관으로 바꾸어 놓고 유교사상과 불교사상이 구축해 놓은 질서를 흐트러뜨릴 우려가 많으므로, 원천적으로 봉쇄해 버리는 것이 상책이다. 현실 세계에서 육관대사가 “대승법으로 중생을 2라치고 귀신을 제이”(2쪽)한다든가 꿈의 세계에서 가짜 귀신을 등장시켜서 진짜 귀신의 존재를 부정하려 한다든가 하는 것⁸⁾은 이런 차원에서 이해된다.

8) 이른바 假鬼騷動을 말한다. 가춘운이 張女郎의 귀신으로 분장해서 양소유

둘째, 유불사상이 대칭적 세계관에서 지향하는 조화로운 세계상을 가로채 버린다는 점이다. 대칭적 세계관은 공간, 인간, 이물의 교섭을 통해 구현되는 바, 교섭의 목적은 신화시대의 원초적 질서를 회복하기 위함이다. 즉 조각나고 흩어진 현실을 한데로 통합함으로써 신화시대에서 구가하던 조화로운 세계를 복원시키려 한다고 볼 수 있다. 뜻밖에도 조화로운 세계상은 대칭적 세계관의 전유물이 되지 않고 있다. 불교사상이나 유교사상 또한 조화로운 세계상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육관대사가 연화봉이라는 신성 공간을 거점으로 하여 온 세상에 대승 불법의 교리를 전파하고자 하는 데서 불교사상이 지향하는 조화로운 세계상이 나타나고, 양소유가 가정과 조정을 거점으로 하여 팔선녀와 화락하고 중국과 이민족의 관계를 조절하는 데서 유교사상이 지향하는 조화로운 세계상이 나타난다.⁹⁾ 불교사상과 유교사상이 구현해 낸 조화로운 세계상은 독자적이지가 못하다. 공간과 공간, 인간과 이물, 이물과 이물의 교섭을 통해 육관대사나 양소유가 조화로운 세계상을 구현할 수 있었음을 고려할 때, 두 사상이 대칭적 세계관의 조화로운 세계상을 가로챘다는 언급이 여기서 가능해진다.

와 정을 통한다는 내용이 귀신소동의 전말이다. 인물과 화자의 시각이 같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양소유와 화자의 시각이 바로 그러하다. 양소유가 귀신소동에 휘말려 들었으니 양소유는 귀신의 존재를 인정한다고 할 수 있으나, 화자는 양소유와는 달리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양소유가 속임수에 넘어갔다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귀신의 존재가 가짜라는 점을 내세우기 때문이다.

- 9) 『구운몽』이 조화로운 세계상을 추구한다는 점은 신재홍, 「九雲夢의 서술원리와 이념성」, 『古典文學研究』5, 韓國古典文學研究會, 1990, 152쪽과 설성경, 「17세기의 창작 장편 구운몽에 나타난 윤리·철학적 형상화」, 『한국 고전소설의 본질』, 국학자료원, 1991, 172~188쪽과 정길수, 「傳奇小說의 전통과 구운몽」, 『韓國漢文學研究』30, 韓國漢文學會, 2002, 373쪽에서 밝힌 바 있다. 세 논자는 조화로운 세계상의 추구가 儒敎的 禮樂思想에 토대를 둔다고 하며 예악사상을 작가의 세계관과 연결시키고 있어서 주목할 만하다.

셋째, 유불사상이 대칭적 세계관에 의해 조성된 세계를 社會文化的 領域으로 흡수해 버린다는 점이다. 대칭적 세계관은 공간의 層差를 없앴으로써 속계의 인물이 이계로 들어가고 이계의 인물이 속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다. 공간과 공간 사이에 층차가 없고 출입까지 자유로우니, 그런 공간에 처한 인물 사이에도 등급이 있을 수 없다. 이런 현상이 유불사상에게는 용납되지 않는다. 유불사상으로서의 공간은 열어놓되 인물 사이의 등급은 세워야 하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유불이 사회적 이념을 제공하는 위치에 있을 때는 으레 萬象의 형체와 속성에 따라 등급을 정하고 줄 세우기를 한다. 불교는 유교와 달리 평등을 내세울 듯도 하나, 그렇지가 않다. 본체의 평등을 내세우기는 해도 현상의 차별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눈여겨 봄 직하다.¹⁰⁾ 육관대사와 성진 사이의 사제 관계가 상하의 엄격한 질서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이 이를 입증한다. 이렇게 보니 유불사상은 층차가 없는 세계에 사회문화적 질서를 불어넣음으로써 엄청난 변화를 도모했다고 할 수 있다. 등급 없는 세계를 등급 있는 세계로 바꾸었으니, 꺾테기만 남기고 알맹이는 모두 알아치운 셈이 되었다.

대칭적 세계관의 견제 방법을 보니, 유불사상이 대칭적 세계관의 속성을 변질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못 마땅하다면 제거해 버려도 될 터인데, 왜 변질시키기만 하는지가 의문이다. 우선 대칭적 세계관의 효용성이 적지 않다는 데서 해명의 단서를 잡을 수 있다. 작은

10) 이런 면은 특히 華嚴宗에서 강하게 나타난다. 화엄종에서는 본체와 현상의 관계를 四法界로 설명한다. 事法界, 理法界, 理事無礙法界, 事事無礙法界가 바로 그것이다. 이 가운데서 사법계는 차별적인 現象界를 가리키고, 이법계는 평등적인 本體界를 가리키므로, 특히 주목할 만하다. 두 법계를 종합해 보면 현상적으로 차별이 있지만 본체는 평등하고, 본체는 평등하지만 개물은 차별이 있다고도 해석될 수 있는데, 어느 쪽이든 간에 현상의 차별을 전제로 제출된 敎理임에는 틀림이 없다. 安啓全, 『韓國佛敎史研究』, 同和出版公社, 1982, 79쪽의 논의 참조.

범위에서 유불사상을 구현하려고 하면 굳이 대칭적 세계관에 기대지 않아도 좋겠으나, 아주 큰 범위에서 유불사상을 구현하려고 하면 대칭적 세계관에 기대지 않을 수 없다. 아주 큰 범위에서는 시공간의 개념이 불가피하게 동원되어야 한다고 볼 때, 유불사상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시공간의 개념을 충분히 내장한 대칭적 세계관과는 달리, 유불사상 그 자체는 시공간의 개념을 내장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 대칭적 세계관이 유불사상보다 훨씬 연원이 깊다는 데서 해명의 단서를 잡을 수 있다. 대칭적 세계관은 신화시대의 소산이니, 유불사상이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독보적 위상을 點하고 있었다. 유불사상이 밀고 들어와 거점을 확보한다 해도 기존 이념의 저항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일거에 척결하기는 어려운 법이다.¹¹⁾ 이런 이유에서 완전한 배척이 아닌 견제의 수단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견제를 한다 하더라도 강도가 어떠한지가 문제된다. 불교사상과 유교사상이 각기 독자적으로 대칭적 세계관을 견제해서는 강도가 그리 클 수는 없다. 대칭적 세계관이 현실의 세계든 꿈의 세계든 간에 고루 편재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확고한 방안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즉 불교사상과 유교사상이 대척적이라고 하며 서로 회피한다든지 주도권을 서로 잡으려 한다든지 현실의 세계에서는 불교사상이 나타나고 꿈의 세계에서는 유교사상이 나타난다든지 해서는 사태를 어렵게 만든다. 실제로 이런 현상이 작품에서 그대로 노출된다. 현실의 세계에서는 불교사상이 지배적 이념으로 등장하면서 인간의 욕망을 강하게 부정하고, 꿈의 세계에서는 유교사상이 지배적 이념으로 등장하면서 인간의 욕망을 강하게 긍정한다. 두 사상의 주장이 상반되고 각기 현실의 세계와 꿈의 세계에서 분속되어 있으니, 서로 충돌을 피할 수 있기는 해도 대

11) 이 점에 대해서는 필자가 『三國遺事』<神呪篇>을 통해 본 土俗信仰의 向方, 『국어국문학』140, 국어국문학회, 2005, 415~417쪽에서 구체적으로 다룬 바 있다.

칭적 세계관을 완전히 제압하기는 어렵게 된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두 사상이 비록 대척적 관계라 해도 손을 잡을 필요가 생기는데, 이런 현상 역시 실제로 작품에 나타나고 있어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 1) 성진이 도라와 밤의 혼자 뵈 방의 누어시니 팔선녀의 말소리 귀에
 징징하고 얼골 빛스 눈의 암암하야 압피 안즌듯 엽피 듣기듯 ㅁ
 읊이 황홀하여 진정치 못하느니라 문득 심각하되 남으로 삼겨나서
 어려서는 공명의 글을 남고 즈라나서 노승 ㅁ튼 님군을 섬겨 나가면
 빅만 덕군을 거느려 적진의 횡횡하고 드러서는 빅귀의 직상이 되어
 읊의는 금포를 남고 허리에 금인을 차고 인주를 읊양하고 빅성을 딛
 무하고 눈의는 알itados 미식을 희롱하며 귀에는 조흔 풍뉴 소리를
 듯고 영화를 당덕에 자랑하고 공명을 후세에 전하면 진실노 대장부
 의 일이어늘 슬프다 우리 불가는 다문 혼 바리씨밥과 혼 잔 경화슈
 요 슈삼권 경문과 빅팔 염주 싹름이요 그 되 허무하고 그 덕이 적멸
 하니 가령 도통을 어든들 삼흔구빅이 혼번 불곳 속에 훗터지면 누
 혼낫 뒤라서 성진이 세상의 낫던 줄을 알이요 (상 11~ 13쪽)
- 2) 상세 즉시 수리를 터니 불세 연화봉의 갖느니라 죽장을 집고 천봉만
 학을 차례로 귀경하여 왈 슬프다 이런 승경을 버리고 병진의 골물하
 니 언제야 공을 일우고 몸이 물너가 이런 산천을 츠즐고 하더니 홀
 연 경쇠소리 들이거늘 샅세 츠즈 올라가니 혼 절이 이시되 법당이
 정쇄하고 죽이 다 신선 ㅁ더라 혼 노승이 이시되 눈섭이 길고 싸는
 프르고 정신이 물그니 그 나효 허아리지 못 홀니라 문득 상서를 보
 고 모든 제즈를 거느리고 당의 노력와 례하고 왈 김픈 산중의 잇는
 죽이 귀 먹어 대원슈 횡츠를 아지 못하야 산문 밧기 나가 덕령치 못
 호니 청컨대 상공은 허믈 마르소서 쯔 이 번은 대원쉬 아조 오신
 길이 아니오니 수이 법당의 올라 례불하고 가소서 상세 즉시 불전의
 가 분향지 빅하고 섬의 노력울시 발이 호뒤여 즈을 썬니 몸이 유장
 소기 안즌느니라 (하 28 ~ 30쪽)
- 3) 소유는 하동의 포의로다 형이 형주를 만나 벼슬이 장상의 니르고 쯔
 제낭즈로 더부러 서로 만나 후의와 심정이 늻도록 더 주밀하니 천칭
 연분이 아니면 엇지 그러하리요 연분이 이셔 뵈오고 연분이 드하면
 훗터지기는 천리의 덧덧흔 일이라 우리 혼번 도라가면 고덕 곡지와

가연 무사덜이 서초한연 적막흔 중의 초동목이 지점하야 닐오디 양 승상이 낭즈로 더부러 노던 곳이라 흐리니 엇지 슬프지 아니흐리오 천하의 삼되 잇시니 유도 선도 불도라 유도는 룬기를 발키고 스업을 귀이 녀겨 일흠을 신후의 전홀 짝름이요 선도는 허탄하니 족히 구홀 것 아니여니와 오직 불도는 내 근덕에 꿈을 꾸면 미양 포단 우회 참연하이 불가의 반드시 연어 잇는지라 (하 50 " 51쪽)

- 4) 이윅하야 흐 노승이 눈섭은 자히나 길고 눈은 물결 곶고 얼굴과 동정이 심상흔 중이 아니라 디 우회 올라 승상과 디좌 왈 산야 사름이 대승상의 뵈느이다 승상이 이러나 답례하여 왈 스뷔 어디로 오신잇가 노승이 쇼왈 승상이 평칭의 고인을 모르시는잇가 승상이 잇기 보다가 씨닷고 제낭즈를 도라보며 니르되 토번을 치러 가실 썸의 동정의 갖다가 남악산의 올라 늘근 화상이 제즈를 드리고 강논흔 양을 보왓습더니 스뷔 기니잇가 노승이 박장대소 왈 올라 올라 그러나 승상이 몽중의 흥번 본건만 기억하고 십년동쳐흔 일은 생각지 못흐시는잇가 승상이 망연여 왈 십륙 세 전은 부모의 것술 써나지 아니하고 십륙 세 후는 벼슬하야 님군을 성겨 분주무가 흐엿스오니 어니 썸에 스부를 좇츠 십 년을 놀아시릿가 노승이 쇼왈 승상이 오히려 썸 씨닷지 못흐엿도다 (하 52-53쪽)
- 5) 잇썸의 팔선녀 들어와 스레 왈 제즈등이 위부인을 묘셔 비흔 거시 업썸와 정욕을 금치 못흐와 중견물 입어줍더니 스뷔 구제하시물 입스와 한 썸을 썸여 쓰오니 원컨디 제즈 되어 길이 갖타시물 바라는 이다 디스 크게 우셔 왈 너히 진실노 썸을 알아쓰니 다시 망염을 생각지 말고 직시 디경법을 베푸러 성진과 팔선여을 가라치니 인간누 썸년 변화는 다 썸 박기 썸이요 일심이 불법의 간척하니 극낙세계의 만만세 극낙세계의 만만세 무궁지락이로구나 (하 55 " 56쪽)

유교사상과 불교사상이 손을 잡고 있는 장면을 인용해 보았다. 각 장면마다 나타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은 성진이 불도에 懷疑하며 유교적 공명주의를 소망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 2)는 양소유가 토번국의 정벌 과정에서 남악 형산의 연화도량을 찾아가 육관대사를 만난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 3)은 양소유가 극도의 부귀영화를 누리면서도 인생무상을 느낀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 4)는 양소유가 재차 만난 육관대

사에게 꾸지람을 듣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 5)는 성진이 꿈 속에서 부부의 연을 맺었던 팔선녀와 道伴으로서 다시 만나고 육관대사로부터 法統을 전수받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불교사상과 유교사상이 손을 잡는 장면은 현실의 세계와 꿈의 세계 모두에서 포착된다. 현실의 세계에서 손을 잡는 장면은 1)과 5)에서 나타나고, 꿈의 세계에서 손을 잡는 장면은 2)와 3)과 4)에서 나타난다. 현실의 세계와 꿈의 세계를 가릴 것 없이 유불사상이 손을 잡는 현상이 심상치 않다. 두 사상이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제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어떤 방법으로 손을 잡느냐를 구체적으로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

■ 현실의 세계에서 손을 잡는 방법

- 1) 불가가 유가의 이상을 드러낸다.
- 5) 불가가 유가의 가족주의를 실현한다.

■ 꿈의 세계에서 손을 잡는 방법

- 2) 유가가 불가를 찾아간다.
- 3) 유가가 불교적 무상감을 느낀다.
- 4) 불가가 유가를 찾아온다.

1)~5)를 불가와 유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정리해 보았다. 현실의 세계와 꿈의 세계라 해서 손을 잡는 방법이 변별되지 않는다. 오히려 상통하는 면이 더 많다. 1), 3)에서는 유가의 가치관 속에 불교적 색채가 이입되거나 불가의 가치관 속에 유교적 색채가 이입되고, 2), 4)에서는 유가가 불가의 영역을 방문하거나 불가가 유가의 영역을 방문하고, 5)에서는 불가가 유가의 삶을 표방한다는 점이 그것이다. 현실의 세계와 꿈의 세계가 상통하는 현상은 두 세계가 고유한 성격은 달라도 대칭적 세계관을 구축하는 데는 공동보조를 취한다고 할 수 있다. 유불사상이 손을 잡게 되자, 그 효과는 아주 크게 나타난다. 귀신이 등장할 수 있는 여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대칭적 세계관에서 추구하는

조화로운 세계상을 탈취하고, 대칭적 세계에 의해 조성된 세계를 사회문화적 영역으로 흡수해 버린다. 이 세 가지 효과 중에서 첫 번째의 효과보다는 두 번째의 효과가 더 강하고 두 번째의 효과보다는 세 번째의 효과가 더 강하다. 대칭적 세계관이 받는 충격은 두 번째, 세 번째로 갈수록 더 크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렇고 보면 유불사상은 때로는 각기 단독으로 때로는 서로 연합하면서 대칭적 세계관의 습통을 조인다고 할 수 있다.

유불사상이 손을 잡기는 하지만, 양자 사이에도 우열 구분이 있기는 하다. 전체 서사의 흐름을 볼 때, 유교사상에 대한 불교사상의 우위는 완연하다.¹²⁾ 이런 우위 현상이 유교사상을 척결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성진이 팔선녀와 도반을 이룸으로써 유가의 가족주의가 실현되었으니, 불교사상이 점한 위상은 ‘유교사상에 대한 동반자적 우위’라고 해야 적절할 성싶다. 유불사상이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대칭적 세계관의 위상은 많이 격하되었다. 조화로운 세계상의 과업을 구현할 수 있는 통로를 유불사상에게 넘겨주고, 제재적 차원으로서의 위상만 지녀야 했다. 유불사상은 중세시대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주도적 구실을 해 왔다. 중세시대 이래 주도적 위치가 뒤바뀌기는 두 사상은 삶의 영역에서 뒤엉켜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구운몽』에서는 바로 이런 ‘뒤엉킴’의 현상을 포착하고 대칭적 세계관과의 관계를 통해 형상화했다. 그 결과 중세의 가치관인 유불사상이 재래의 사고체계인 대칭적 세계관을 격파한다는 특이한 主題網을 형성해 낼 수 있었다.

12) 이 점에 대해서는 여러 논자들이 이미 지적한 바 있다. 성현경, 『韓國小說의 構造와 實相』, 嶺南大學校 出版部, 1981, 129쪽에서 여러 논자들의 견해를 종합·정리해 놓았기에 참고할 만하다.

IV. 對稱的 世界觀으로 본 『구운몽』의 小說史的 位相

이른 시기의 서사문학에는 유불사상이 대칭적 세계관과 맞서는 장면이 적지 않게 나타난다. 불교적 시각에서 토속신을 妖物이라고 하는 설화나 유교적 시각에서 민간신앙을 邪術이라고 하는 설화가 대표적인 예이다.¹³⁾ 이들 설화에는 으레 유가나 불가가 대칭적 세계관에 입각한 인물을 퇴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물의 의식, 분위기, 정황을 고려하면 유불사상이 대칭적 세계관과 화동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도 된다. 『구운몽』에서도 이런 정황이 나타나지만, 기존 경우와는 많이 다르다. 불교사상과 유교사상이 개별적으로 대칭적 세계관과 대응하는 기존 경우와는 달리, 불교사상과 유교사상이 합세하여 대칭적 세계관을 견제하기 때문이다. 두 사상이 합세하자, 대칭적 세계관은 전혀 위력을 발휘하지 못한다.¹⁴⁾ 한때 대단한 위력을 지녔던 대칭적 세계관이 왜 이처럼 무력한가? 『구운몽』은 왜 이처럼 대칭적 세계관을 약화시켜서 나타내는가? 유불사상과 대칭적 세계관의 대립적 관계를 해명해야 『구운몽』의 위상이 보다 선명히 드러나리라 본다.

- 1) 金良圖가 소시적 몸이 굳어져 말을 할 수 없었던 적이 있었다. 大鬼가 여러 小鬼를 데리고 와서 家中의 모든 음식을 맛보는 장면을 목격하고, 막으려고 했으나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김양도의 아버지

13) 유불사상과 대칭적 세계관이 문화의 기층에서 그만큼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에 대해서는 조동일, 『삼국시대 설화의 뜻풀이』, 集文堂, 1990, 114쪽과 신태수, 위의 논문, 415~417쪽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14) 불교사상이나 유교사상으로 무장한 장수는 등장하지만, 대칭적 세계관으로 무장한 장수는 등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불교사상으로 무장한 장수라면 육관대사와 성진이 해당되고, 유교사상으로 무장한 장수라면 양소유가 해당된다. 이 점에서 유불사상이 장수는 없고 즐거움만 있는 대칭적 세계관에 대해 소탕 작전을 벌인다는 비유가 가능하다.

가 法流寺의 중을 데려와서 經을 읽혔더니 대귀가 소귀로 하여금 철퇴로 처 죽이게 했다. 어쩔 도리가 없어지자, 僧侶 密本을 불러 들였다. 밀본이 온다는 소문이 돌자, 소귀는 도망가고 대귀만 오만하게 남아 있다가 大力神에게 잡혀갔다. (一然, 『三國遺事』 <密本摧邪> 卷五 神呪)

- 2) 李寅甫가 祭告使로서의 임무를 마치고 浮石寺에 머무르다 아리따운 여인을 만났다. 여인이 평소에 이인보의 높은 뜻을 사모해 왔다고 고백했다. 이인보가 보니 그 여인은 인간이 아니었으나, 미색에 혹해서 여인과 잠자리를 같이 했다. 여인은 사흘 동안 머무르다가 돌아갔다. 그 뒤에 다시 나타나서 임신을 했다면서, 뱃속에 아기를 하나 더 가지고 싶다고 했다. 같이 잠자리를 하고 난 다음 떠나갔다. 興州에 들어가서 자려 하는데 다시 찾아왔다. 이인보는 후환이 두려워 대면하고도 못 본 체 했다. 여인은 몹시 화를 낸 뒤, 문을 나갔다. 여인에 의해 廳舍 문짝 하나가 부서지고 나뭇가지가 잘려졌는데, 마치 도끼로 찍은 듯했다. (崔滋, 『補閑集』下)

1)과 2)는 『구운몽』 이전의 설화로서, 유불사상과 대칭적 세계관의 관계를 살피기에 좋은 자료이다. 1)에서는 승려 밀본이 귀신을 퇴치한다고 했다. 귀신이 家中 紛亂을 일으킨다고 하지만, 귀신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신들의 행동이 紛亂이 아니라고 할 법하다. 가중을 출입하는 이유는 인간과 대등하게 교류하고 따듯한 정을 나누고 싶은 소망 때문이라는 변명도 가능하다. 귀신이 가진 소망은 대칭적 세계관의 전통과 관련이 있다. 대칭적 세계관이 작용하면 인간과 이물이 거리낌 없이 교섭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귀신이 바로 대칭적 세계관을 지녔다고 해도 무방하다. 사정이 이렇다면 1)은 불교사상과 대칭적 세계관의 관계를 다루었다고 할 수 있다. 2)에서는 이인보가 집요하게 달라붙는 귀녀를 물리친다고 했다. 이인보는 祭告使로서 國家 儀禮를 관장하므로, 유학사상에 입각해 있는 자이다. 유학자답게 귀녀와 가까워지지 않기를 소망하지만, 귀녀의 소망은 다르다. 정분을 나누고 임신까지 했으니, 삶을 같이 할 수도 있다고 여겼을 법하다. 귀녀가 대칭적 세계관

에 입각해서 이인보에게 접근한다고 볼 때, 2)는 유교사상과 대칭적 세계관의 관계를 다루었다고 할 수 있다.

1)과 2)는 모두 귀신에 대한 유불의 승리를 나타낸다. 話者가 불가나 유가가 모두 귀신을 물리쳤다는 데 초점을 맞추므로, 이렇게 볼 수 있다. 승리라 해도 어떤 성격의 승리냐가 중요하다. 일방적으로 상대방을 압도해서 승리를 거두는 경우와 극심한 난타전 끝에 승리를 거두는 경우가 같을 수 없는데, 1)과 2)에 나타난 유불의 승리는 후자에 해당된다. 귀신의 반격이 가볍지 않다는 점을 그 근거로 삼을 수 있다. 1)에서는 귀신이 법류사의 중을 때려죽이고, 2)에서는 여귀가 이인보의 처사에 대해 극심한 분노를 드러낸다. 귀신의 반격은 대칭적 세계관의 저력이 만만치 않음을 드러낸다. 대칭적 세계관의 저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유불사상과 연관되지 않을 때를 눈여겨 볼 만하다. 유불사상과 연관되지 않을 때 地神, 山神, 水神을 통해 國家大事에까지 관여한다는 점¹⁵⁾을 상기하면, 대칭적 세계관이 사회의 정신적 지주로서 큰 몫을 담당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정도의 저력을 제압하려면 승리한 쪽에서도 적지 않은 상처를 입게 마련이다. 1)에서 법류사의 중이 죽고 2)에서 문짝이 부서져 나간 현상은 승리한 쪽의 상처를 간접적으로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1)과 2)가 고려시대의 知的 基盤 위에서 기록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1)과 2)에 나타난 대칭적 세계관에 대한 인식은 곧 고려시대 知識人 階層의 인식을 대변한다고 보아도 좋을 듯하다. 1)과 2)에서 귀신이

15) 『三國遺事』에 이런 내용이 많이 담겨 있다. 권1, 紀異, 射琴匣條에서는 水神이 신라 毗處王을 죽음의 위기에서부터 벗어나도록 하고, 권2, 紀異, 處容郎望海寺條에서는 地神과 山神이 현강왕에게 나라의 亡兆를 예고했다고 한다. 지신, 산신, 수신이 등장할 때는 반드시 인간의 형상으로 등장한다. 인간과 이물이 몸을 바꾸는 현상은 대칭적 세계관의 오랜 관행임을 상기할 때, 대칭적 세계관이 신이 인간의 형상으로 등장할 수 있게끔 하는 동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불가와 유가에 각기 밀린다고 하니, 고려시대의 지식인 계층은 대칭적 세계관이 유불사상에 비해 다소 밀리는 형세로 인식했다고 할 수 있다. 고려시대 지식인 계층의 인식이 이렇다면 삼국시대나 그 이전의 시대는 어떠한지 어느 정도 가늠이 된다. 삼국시대의 경우는 고려시대와 엇비슷하리라 본다. 주지하다시피 삼국시대는 고려시대와 마찬가지로 불교를 國是로 삼으면서 유교를 통치이념으로 채택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으므로, 대칭적 세계관이 밀리는 형국이라 할 수 있다. 삼국시대 지식인 계층의 논급이 희소하기는 하지만, 당대의 지식인 계층이 이같이 인식했으리라는 예견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렇다면 삼국시대 이전의 경우는 대칭적 세계관 쪽에 무게가 더해지리라고 추리해 볼 수 있다. 유불사상이 사회에 着木되기 이전이니, 당연히 대칭적 세계관이 사회의 지배적 논리로 자리잡고 있었다고 보아야 합당하다.

시대가 내려올수록 대칭적 세계관이 위력을 잃는다고 인식한다면, 조선시대에는 완전히 소멸되었거나 간신히 명맥만 유지했다고 인식되어야 할 것 같다. 사정은 이렇지가 않다. 『금오신화』나 『기재기이』를 보면 그런 점이 드러난다. 『금오신화』의 <만복사저포기>, <이생규장전>, <취유부벽정기>, <남염부주지>, <용궁부연록>과 『기재기이』의 <하생기우전>, <최생우진기>에는 대칭적 세계관이 아주 꺾진하게 형상화되어 있다. 귀녀와 인간이 사랑을 나누고, 속계와 이계가 서로 문을 활짝 열어놓는다. <최생우진기>, <남염부주지>, <용궁부연록>의 경우는 이계가 속계와 동떨어져 있어 別世界처럼 인식되기도 하나, 공간적 거리가 인간과 이물, 속계와 이계의 교섭에 지장을 주지는 않는다. <최생우진기>의 주인공과 용왕이 수부, 천계, 속계가 하나라고 발언한 데서도 드러나듯¹⁶⁾, 삼라만상이 한 테두리 안에 서로 기대고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준다. 인간과 이물, 속계와 이계가 이처럼 밀접한 관계를 보인다고 할 때, 대칭적 세계관에 대한 인식은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퇴색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16) “水是天之一龍爲物中王”(〈최생우진기〉, 16쪽)

『금오신화』는 15C 작품이고 『기재기이』는 16C 작품이다. 『금오신화』와 『기재기이』에 대칭적 세계관이 나타난다고 해서, 15C 이후부터 대칭적 세계관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졌다고 하기는 어렵다. 대칭적 세계관이 나타날 법한데도 나타나지 않는 작품도 있기 때문이다. 17C 초엽의 『홍길동전』이 바로 그렇다. 『홍길동전』은 공간 이동이 중요한 비중을 지니는 작품이다. 홍길동이 조선 서울에서 제도로, 제도에서 조선 서울로, 제도에서 울도국으로 여러 공간을 중횡으로 이동한다. 만약 대칭적 세계관이 작용한다면 공간 사이의 거리가 좁혀져서 구름을 타고 이동할 필요가 없었을 터이다. 공간과 공간 사이가 좁혀질 수 없으니 구름이 동원되었을 수도 있고, 탁월한 능력을 강조하자니 공간과 공간 사이를 좁힐 수 없었을 법도 한데, 아무래도 후자 쪽에 더 무게가 실릴 성싶다. 홍길동이 여러 공간을 섭렵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공간과 공간 사이를 좁힐 수 없었다고 보는 편이 타당하다. 결국 인물의 능력을 강조하면 대칭적 세계관은 설 자리를 잃게 된다. 만물이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한다고 하는 대칭적 세계관으로는 인물의 능력을 강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칭적 세계관을 토대로 할 때, 『홍길동전』 이전의 조선시대 지식인 계층은 두 가지 부류로 나누어진다. 인물의 능력보다 대칭적 세계관의 위력을 강조하는 쪽과 대칭적 세계관의 위력보다 인물의 능력을 강조하는 쪽이 그것이다. 전자는 『금오신화』와 『기재기이』에서 확인되고, 후자는 『홍길동전』에서 확인된다. 후자라 해서 대칭적 세계관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미 대칭적 세계관은 신화시대 이래로 전통의 맥을 이어온 데다 17C 전후에 귀신이나 용왕 등의 이물을 거론함으로써 대칭적 세계관의 존재를 부각시키는 典籍도 적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할 수 있다.¹⁷⁾ 따라서 대칭적 세계관의 존재

17) 17C 이전의 『三國遺事』, 『高麗史』, 『朝鮮王朝實錄』, 『世宗實錄地理志』 등의 史書에 용 혹은 용왕에 대한 기록이 많이 실려 있고, 『殊異傳』, 『金鰲

자체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다기보다는 대칭적 세계관을 인물보다 우위에 둘 수 없다고 여겼다고 해야 타당할 줄 안다. 이렇게 보면 17C 초엽까지는 대칭적 세계관의 위력을 앞세우고자 하는 지식인 계층과 인물의 능력을 앞세우고자 하는 지식인 계층이 팽팽히 맞서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인물이 전면에 나서면 대칭적 세계관은 나타나지 못한다. 萬象이 대등해질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져야 대칭적 세계관이 작용할 수 있는 바인데, 인물이 전면에 나설 경우에는 만상이 대등해질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지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당연히 대칭적 세계관이 이입되더라도 제대로 작용할 수 없고, 기껏해야 제재적 차원으로 기능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인물이 전면에 나선다고 할 때, 대칭적 세계관의 위력 대신에 인물의 능력을 선택했다는 의미가 된다. 대칭적 세계관의 위력을 부정하기 위해 인물의 능력을 내세웠다고 하더라도 대칭적 세계관이 작용하지 않는 이상, 대칭적 세계관의 위력이 부정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이 점에서 『홍길동전』은 하나의 과제를 던져 준 셈이 된다. 대칭적 세계관의 위력을 실질적으로 폄하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인물을 전면에 내세우는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대칭적 세계관과 맞설 수 있는 同類의 對抗馬가 필요하다. 『구운몽』의 유불사상은 바로 여기서 주목에 값한다. 『구운몽』에서는 최상위에 유불사상을 배치하고 유불사상이 주인공의 의식에 관여한다고 함으로써 대칭적 세계관에 정면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았다.

『구운몽』은 외래 세력인 유불사상이 연합하여 토착 세력인 대칭적 세계관을 물리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물론 작품 밖의 현실이 『구운

新話』, 『企齋記異』 등의 설화나 소설에는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실려 있다. 용이나 귀신에 대해서는 윤열수, 『용, 불멸의 신화』, 대원사, 1999, 서영대 외 1인, 『용, 그 신화와 문화』, 민속원, 2002, 김태준, 동아시아에서 신의 존재, 『東洋學』31, 東洋學研究所, 2001에서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어서 참고할 만하다.

몽』과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칭적 세계관이 이토록 위력을 잃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구운몽』에서 대칭적 세계관의 위상을 한껏 떨어뜨리던 그 당시에도 대칭적 세계관은 基層文化에서 다양한 방향으로 민간의식을 주도했으니, 『구운몽』의 내용은 일반적 사실과 분명히 거리가 있다. 무엇보다 유불세력이 손을 잡고 대칭적 세계관을 조직적으로 구축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구운몽』에서 나타나는 대칭적 세계관의 폐퇴는 선언적 규정에 가깝다고 해야 타당하다. 오히려 유불사상이 합세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대칭적 세계관의 위력이 여전하다는 반증도 된다. 문제는 이와 같은 『구운몽』의 선언적 규정이 상당한 영향력을 지닌다는 데 있다. 『구운몽』 아래에 『금오신화』나 『기재기이』에 나타난 대칭적 세계관의 수준을 넘어서는 작품이 별반 눈에 띄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언급이 가능하다. 소설에서 대칭적 세계관이 제대로 형상화되지 않는 데는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기는 하겠으나, 『구운몽』의 영향력이 큰 요인으로 작용했으리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대칭적 세계관의 측면에서 볼 때, 『구운몽』이 긍정적일 수가 없다. 서로 동떨어진 유불사상을 결집시켜 대칭적 세계관의 위력을 약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구운몽』은 前代 지식인 계층의 인식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인물의 능력보다 대칭적 세계관의 위력을 강조하는 쪽에 대해서도 부정적 시각을 보이고, 대칭적 세계관의 위력보다 인물의 능력을 강조하는 쪽에 대해서도 부정적 시각을 보인다. 굳이 언급하자면 후자에 가까우나 후자로는 대칭적 세계관의 실체를 폄하하기 어려우므로, 대칭적 세계관을 노출시킨 다음 유불사상으로 맞서게 했다. 유불사상이라 하더라도 그 관계가 문제이다. 서로 동떨어질 경우 힘이 분산되는 양상을 보일 터이니 유불사상을 한데 결집시켜서 한 가닥으로 만들 필요가 있는데, 『구운몽』은 이런 필요성에 적극적으로 부응했다. 『구운몽』에서 구사한 창작방법은 소설사의 물줄기를 바꾸어 놓았다. 전대 소설에서 여전히 높은 위상을 지니던 대칭적 세계관을 낮은 데로 끄집어 내리는 방법을 집요하게 구사함으로써, 대칭적 세계관이

후대 소설에서 설 자리를 잃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구운몽』은 전대 소설의 물줄기를 바꾸고 새로운 경향을 창도하고자 하는 소설이라고 할 수 있다.

V. 結論

『구운몽』에는 공간이 아주 넓게 나타나고 인물도 아주 다양하게 등장한다. 여러 공간과 인물은 각기 깊은 관련을 지니며 대등한 위치에서 종횡으로 교섭한다. 공간끼리 혹은 인물끼리 차등이 있을 법한데도 그렇지가 않으니 의외이다. 공간이나 인물이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는 그럴 수 있는 원리가 작용한다고 보아야 하겠는데, 그것이 바로 대칭적 세계관이다. 대칭적 세계관이 이입되면 만상이 대등해진다는 점을 전제로 할 때, 『구운몽』에 대칭적 세계관이 이입되었다고 해도 무방하리라 본다. 대칭적 세계관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기는 하나, 작품의 지배적 원리로 자리매김하지는 못한다. 유불사상이 대칭적 세계관을 견제하면서 작품의 지배적 원리로 등장하기 때문이다.

유불사상이 대칭적 세계관에 대해 못마땅하다면 제거해 버리면 그만 일 터인데, 왜 견제하고자 하는지부터 해명되어야 한다. 대칭적 세계관을 제거할 수 없는 이유는 두 가지이다. 우선 효용성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시공간의 개념을 충분히 내장한 대칭적 세계관과는 달리, 유불사상 그 자체는 시공간의 개념을 내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칭적 세계관을 제거해 버릴 수가 없다. 그 다음으로 대칭적 세계관이 유불사상보다 훨씬 연원이 깊다는 점이다. 대칭적 세계관은 유불사상이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독보적 위상을 點하고 있었다. 유불사상이 밀고 들어와 거점을 확보한다 해도 기존 이념의 저항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일거에 척결하기는 어려운 법이다. 이런 이유에서 완전한 배척이 아닌 견제의 수단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견제를 하더라도 강도가 문제인데, 불교사상과 유교사상이 각기 독자적으로 나서서는 견제의 강도가 클 수가 없다. 견제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두 사상이 손을 잡고 공동 전선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두 사상이 손을 잡는 양상은 ‘유불의 넘나들기’로 나타난다. 유가의 가치관 속에 불교적 색채가 이입되거나 불가의 가치관 속에 유교적 색채가 이입되고, 유가가 불가의 영역을 방문하거나 불가가 유가의 영역을 방문하고, 불가가 유가의 삶을 표방한다는 점이 그것이다. 유불사상이 전방위로 넘나들면서 대칭적 세계관을 사회문화적 영역 속으로 가두어 버리는 데 성공한다는 점에서, ‘유불의 넘나들기’는 『구운몽』이 대칭적 세계관의 영향력을 위축시키기 위해 창안한 창작방법이리 해도 무방하리라 본다.

대칭적 세계관에 대해 유교사상이나 불교사상이 대응하는 양상은 『구운몽』 이전에도 이미 있어 왔다. 『삼국유사』나 『보한집』이 바로 그렇다. 대칭적 세계관이 유불사상에 밀리는 추세를 보인다는 점을 감안할 때, 유불사상이 사회의 지배적 이념으로 정착되면서 대칭적 세계관이 수세에 몰린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그런데 소설시대가 열리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초기 몇몇 소설에서 대칭적 세계관을 아주 꺾진하게 형상화함으로써 서사문학에서 퇴색되어 가던 대칭적 세계관이 되살아나는 조짐을 보였기 때문이다. 『구운몽』은 바로 이런 조짐을 차단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구운몽』으로 인해 대칭적 세계관이 위력을 잃었다고 할 수는 없으나, 『구운몽』으로 인해 적어도 서사문학에서 대칭적 세계관이 받을 불이기가 어렵게 되었다. 이렇게 볼 때, 『구운몽』은 전대 소설의 물줄기를 바꾸고 새로운 경향을 창도하고자 하는 소설이라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대칭적 세계관(a symmetrical view of the world), 유불사상(Confucian-Buddhism thought), 유불의 넘나들기(Haunting between Confucian and Buddhism), 공간과 인물(space and character), 작품의 지배적 원리(a dominant principle of the work)

참고문헌

- 金一烈, 『古典小說新論』, 새문社, 1991, 203쪽.
- 김태준, 「동아시아에서 신의 존재」, 『東洋學』31, 東洋學研究所, 2001.
- 서영대 외 1인, 『용, 그 신화와 문화』, 민속원, 2002.
- 설성경, 「17세기의 창작 장편 구운몽에 나타난 윤리·철학적 형상화」, 『한국 고전소설의 본질』, (국학자료원, 1991), 172~188쪽.
- 성현경, 『韓國小說의 構造와 實相』, 嶺南大 出版部, 1981, 129쪽.
- 송성욱, 「고전소설에 나타난 환상적 표상의 몇 가지 층위」, 『성심어문 논집』25, 성심어문연구회, 2003, 9쪽.
- 신재홍, 「九雲夢의 서술원리와 이념성」, 『古典文學研究』5, 韓國古典文學研究會, 1990, 152쪽.
- 신태수, 「『三國遺事』〈神呪篇〉을 통해 본 土俗信仰의 向方」, 『국어국문학』140, 국어국문학회, 2005, 415~417쪽.
- _____, 「殊異傳 逸文의 신화적 성격과 교환 가능성의 실현 양상」, 『어문학』85, 한국어문학회, 2004, 207~211쪽.
- _____, 「귀신등장소설의 본질과 그 변모과정」, 『어문학』76, 한국어문학회, 2002, 393~398쪽.
- 安啓全, 『韓國佛敎史研究』, 同和出版公社, 1982, 79쪽.
- 윤열수, 『용, 불멸의 신화』, 대원사, 1999.
- 이주영, 「구운몽에 나타난 옥망의 문제」, 『古小說研究』13, 韓國古小說學會, 2002, 37~41쪽.
- 정길수, 「傳奇小說의 전통과 구운몽」, 『韓國漢文學研究』30, 韓國漢文學會, 2002, 373쪽.
- 조동일, 『삼국시대 설화의 뜻풀이』, 集文堂, 1990, 114쪽.

<Abstract>

A Symmetrical View of the World in <Gu-un-mong>

Shin, Tae-Soo

In <Gu-un-mong>, an extensive view of the world appears, the characters are also various. Various spaces and characters have deeply been related with one another and they share on an equal status in every direction. It seems that for space or character to keep an equal relation, a principle acts on, which is the very symmetrical view of the world.

When assuming that if a symmetrical view of the world is imported into, all things in the universe get even with, it seems that a symmetrical view of the world has been imported into <Gu-un-mong>.

Even though a symmetrical view of the world covers a wide range, it has not took its position as a dominant principle, which may be because Confucian-Buddhism thought appears as a dominant principle of the work while holding a symmetrical view of the world in check. Here, the strength of check is questionable, when Buddhism thought and Confucian one come out independently, the strength of check could not be great. The aspect of two thoughts joining hands each other has appeared as 'haunting between Confucian and Buddhism'.

'Haunting between Confucian and Buddhism' may be a creative method originated by <Gu-un-mong> to shrink the influence of a symmetrical view of the world. Even though a symmetrical view of

the world is not shrank practically due to this creative method. This point that a symmetrical view of this world contributed to not making foot put in a descriptive literature has been recognized.

From this point of view, <Gu-un-mong> may be the novel that tried to change the stream of the last period and create a new tendency.

신태수
경일대 교육문화콘텐츠학과 교수
전화: 019-515-8879
e-mai : sandang@paran.com

이 논문은	2006년	4월	30일	투고하여
	2006년	5월	30일까지	심사완료하여
	2006년	6월	30일	간행함